

접경지역 남방한계선 변화과정 소고

- 장단군 진동면 초리 출생자 성낙균의 삶을 중심으로 -

1)성지오*

I. 머리말	III. 장단군 진동면 초리 출생 생존자
II. 남방한계선·북방한계선·민통선이 생겨난 이유	성낙균 삶과 민통선 변화
	IV. 맺음말

I. 머리말

본 연구는 한국전쟁이 휴전되면서 생겨난 한계선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 한계선이 그어진 자리에서 태어나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하겠다. 한 개인의 삶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였는지, 한국전쟁의 상흔을 민통선이 달라지면서 변하여 가는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최근 <경기일보>에 보도된 고인돌 군이 있던 자리를 그분의 증언으로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의 한 생이 자꾸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이렇게라도 흔적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소위 민통선 북쪽 마을의 사회 공간적 분포 및 변화의 문제 속에는 그곳에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이 있다.

여기서 예로 든 사람은 나의 아버지이다. 내가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 태어났으니 자라면서 수없이 들었던 피란 나오던 이야기, 우리 가족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더 절절히 와 닿는다. 자랄 때 임진강 얘기만 들어도 그 강은 건너가야 할 곳, 내 부모님의 터전이 있는 곳으로 그리웠고 궁금했다.

아버지의 고향은 장단군 진동면 초리, 민간인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다가 최초의 민통선이 정해지면서 농사를 지으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된다. 그러다가 민통선이 북상하게 되어 집터 자리도 들어가게 되는 그나마 행운이랄까 북한과의 문제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겪은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민간인통제선이 그려진 것은 휴전되고 다음 해인 1954년이다.¹⁾ 그러다가 1976년 변화가(의) 7.4 남북공동성명의 결과로 있게 되고, 1983년 최초의 민통선이 북상하고 1993년, 1997년, 2008등 4차에 걸쳐 북상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파주의 탄현 등 임진강 하류 접경지역도 내가 고3 때인 76년까지도 민간인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지역이었다. 그 마을 중 민간인 통제구역 마을에서 해제된 마을은 문산을 내포리와

*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momone9991@hanmail.net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탄현면의 금승리 낙하리 문지리 등의 10개 마을이다. 그러던 곳에 카페들이 생겨 북쪽을 바라보며 즐기게 되다니 가히 상상도 할 수없는 변화를 보고 있다.

2022년 현재의 파주의 민통선 안의 마을은 임진강 건너 장단군의 진동면, 장단면, 진서면, 군내면의 마을들 24개 리가 있다. 그중 현재 사람들이 사는 민통선 안의 마을은 대성동, 통일촌, 해마루촌의 3개 마을만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농사만 지으러 들어갈 수 있다. 민통선 북상은 민통선 북쪽 마을의 고유 특성을 사라지게도 할 수 있지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II. 남방한계선·북방한계선·민통선이 생겨난 이유



<그림 1> 1954. 2. 3 귀농선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과 함께 휴전선이 확정되었고, 1954년 2월 3일 UN군사령관은 '미8군CXGC-P370.42호'에 의거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인접한 접경구역에서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을 목적으로 민간인의 귀농을 통제하는 귀농선을 설정하고, 이 지역의 통제권과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육군사령관 직권으로 다시 휴전선 일대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남방한계선 바깥으로 20km에 선(군사분계선 이남 20~40km에 해당)을 그어 민간인은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게 금지하였다. 당시의 귀농선이라고 불렸는데, 즉 농사는 지을 수 있었지만, 거주를 허락하지는 않았다.

미군에 의해 그어진 그 귀농선이 민통선으로 바뀐 것은 1959년이다. 흔히 38선으로 불리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 2km씩 총 4km로 구간에 조성된 비무장 지대(MDL)방어 업무를 한국군이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명칭이 변경됐다. 민통선은 남방한계선(SBL) 바로 밑에 자리해 있어 '군사적 완충 지역'으로 불리는 DMZ에 이어 또 하나의 완충 지역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반도의 분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경계 및 경계에 따른 지역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계선 및 경계지역에 의해 민간인통제선(民間人統制線, Civilian Control

Line, 이하 민통선, CCL), 민통선 북쪽 마을, 접경지역 등 새롭게 명명된 공간이 생겨났다. 이중 민통선은 「군사시설보호법(1981.12.31.)」 1차 개정 때 명시된 법률용어이다.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된 선은 전쟁 이후 유엔군 문서 및 연구 논문 등을 통해 귀농선, 영농선 등의 용어로서 불리게 되었고, 「군사시설보호법(1981.12.31.)」에 의해 ‘민간인 통제선’으로 명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민간인통제선 설정

민간인통제선은 「군사시설보호법(1981, 12, 31)」개정 때 법률에서 명시한 법률용어로서 개정 및 국방부 고시를 통해 조정된 군 통제선이다. 6·25전쟁 이후 귀농선 또는 영농선과 같은 통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이나, 그 목적에 있어 설정 차이가 있다. 민간인통제선은 국방부 장관이 고시한 선으로서 1978년 처음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데, 당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1972.12.26.)」의 제5조 출입 등의 제한 조항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 출입 등 제한되어 보호구역의 담당부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민간인통제선에 대해 처음으로 기술한 「군사시설보호법(1981.12.31.)」 제7조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제1항에 의거한 통제보호구역 출입 때 해당 구역 민간인통제선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 마을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곳에 출입하려면 담당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군사시설보호법(1972.12.26.)」의 보호구역이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일치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일부 개정 및 제정을 통해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변경 및 축소하게 된다. 현재 그 범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9.10.24.)」 제5조 2항에서 ‘군사분계선의 이남5~ 10km 범위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 1항에서는 통제보호구역을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기별 민통선에 대한 법률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1983년 민통선이 다시 정해졌지만 1987년 경기도에서 조사한 표이다(표1)

〈表 1〉 민통선 북방지역 행정구역 분류					
		읍 주 마을 명칭			미 입주마을 명칭
		자 립 안 정 촌	재건촌	통일촌	
파주군	문산읍	내포3리(구촌동, 가래울), 내포4리(안골)			
	탄현면	금송리(비석동), 낙하리(상촌), 문지리(대촌), 오금1리(동촌), 오금2리(도곡동), 금산1리(조집동), 금산2리(대촌), 만우리(은계동), 태봉리(오산동), 성동리(요동, 작골)			
	군내면			백연리(통일촌)	정자리, 읍내리, 상산리, 점원리, 방목리

<그림 2> 1987년 민통선 북방지역 행정구역 분류(경기도 조사)

2. 장단군 초리지역과 남방한계선의 변화

1983년 당시 민간인 통제구역은 문산읍의 내포3리와 내포4리, 탄현면의 금승리 낙하리 문지리 오금1리 오금2리 금산1리, 금산2리, 만우리, 대동리, 성동리 등의 마을도 주민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마을이었다. 그곳을 들어가려면 주민이나 패스가 있어야 했고 저녁엔 바리케이드를 쳐 군인들이 보초를 서면서 통제하기 때문에 자유로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9년 1.21일 김신조 이하 일당이 청와대 폭파 등의 이유로 남파되는 불안의 기류가 돌았고, 협상과 여러 차례의 남북대화를 하면서 현재와 같이 되었다. 현재는 군내면의 백연리 정자리 읍내리 송산리 점원리 통일촌의 방목리와 함께 정자리, 조산리, 장단면의 강정리, 거곡리, 노상리, 노하리, 덕산리, 도라산리, 동장리, 석곶리, 정동리, 진동면의 동파리, 서곡리, 용상리, 초리, 하포리 진서면의 금릉리, 선적리, 어용리등이 민통선 안의 마을로 분류된다.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5~10km까지 올리면서 그런 과정에서 나의 아버지만큼 실감 나는 인물이 없다. 그리하여 이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더욱이 올해 99세로 전화도 잘 못 받으시니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다. 민통선에서 태어나 민통선과 함께 울고 웃었던 아버지의 한생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 봐야겠다는 의도도 있음을 밝힌다.



<그림 3> 민통선 북상 조정현황

Ⅲ. 장단군 진동면 초리 출생 생존자 성낙균의 삶과 민통선

1. 초리에서의 시절(1924년 1세~1951년, 28세)

장단군 진동면 초리에서 성금용과 김동희 사이에서 1924년 태어났다. 부친보다는 조부의 사랑과 믿음을 받으며 컸다. 증조할아버지가 논에 다녀오실 때쯤이면 양 갈래로 갈라진 길에 있던 나무 위에 올라가 놀다가 할아버지가 오시는 길로 뛰어가 업혀 오곤 했다.

증조할아버지는 4형제와 두 누이의 장남으로 태어나 나름대로 가정을 일으킨 경우이다. 밭을 마련하여 콩 농사를 지어 살림을 일으키면서 동생들이 장성하자 장단콩을 심어 첫해는 장가를 들이고, 다음 해에는 세간을 냈다. 그런 증조할아버지보다 할아버지는 한량으로 소문이 났다. 집에선 할 일이 별로 없고, 밖에 나가면 모두 좋다는 평판을 들었다고 한다. 동네 삼거리에 쌀 찢는 방앗간을 사서는 집의 논에서 나는 벼를 찢고도 용궁을 떠서 당신 쓸 용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렇게 밖으로만 돌더니 어느 해 집을 새로 짓겠다고 하니 뒷목에 앉아 공부하는 아들에게 “저 조그만 것을 장가를 들이다니…” 하시더라는 것이다. 곰살스런 부친의 모습도 아니었으면서 아버지가 느닷없이 삶에 끼어들어 혼사를 정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아버지는 장단소학교를 다니다 4학년 때 고랑포 소학교로 다니던 중이었다. 그곳에는 두어 살 아래인 고랑포 소학교 교장 선생님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7살 신랑은 한 살 위인 신부에게 장가를 들었고, 아버지가 살던 초리는 고랑포와 개성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학교가 파해 집으로 올 때는 신부가 저녁 하는 물 길으러 나오는 시간이었다는데, “저기 니색시 물 길 나왔다.”라며 자전거로 휙 달려가는 친구들, 소심했던 신랑은 집과 색시에겐 말도 못 하고 증조할머니와 할머니 앞에 “그놈의 물은 왜 하필 그때 길러 나와서는…….” 하며 가방을 던지며 투덜댔다고 한다.

그러다가 언니들 둘이 태어나고 증조할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대를 이을 아들은 못 보고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막 태어난 핏덩이 아들을 두고 징용을 나간다. 집안 어른들의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징용을 끌려간다니 가기 전 무엇이 소원이냐고 작은 할아버지들이 물었고, 아버지는 ‘박연폭포가 그리 멋있다는데 거기나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막내 할아버지와 두 분은 박연폭포를 보러 간다. 그 시절 개성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장단 사람들은 개성관광을 하고 온다 하면 떡과 술 따위를 들고나와 얘기들을 들곤 했다 한다.

세월이 흘러 2008년 개성관광이 열렸을 때 셋째 딸인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박연폭포를 갔다. 가기 전부터 개성을 간다는 말에 아버지는 “그곳을 다시 가 볼 수 있다니 개성 선죽교 옆에는 나라 임금님이 내려준 우리 여왕 할아버지의 유허비가 있단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며 그렇게 좋아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제일 잘한 일이 개성 구경시켜드린 일인 것 같다. 부녀가 함께하는 모습에 너무 보기 좋다고들 하였다. 아버지는 “박연폭포도 그대로고 그때 머물던 저 여관이 그대로 있구나” 하셨다. 아버지와 나는 박연폭포에서 선죽교에서 유허비 앞에서도 사진을 찍었다.



<그림-4> 개성 박연폭포에서



<그림-5> 정몽주의 핏자국이 남아있는
선죽교
뒤로 성여완의 유허비가 보인다



<그림-6> 선죽교에서 아버지와



<그림-7> 아버지 가기 전부터 이곳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다(성여완 선조
유허비 앞에서)



<그림-8> 선죽교 옆의 성여완 유허비



<그림-9> 선죽교 옆의 유허비를 그대로
만들어 세운 포천 성여완묘 입구 유허비

아버지가 징용으로 간 곳은 그렇게 심한 곳은 아니었던 듯, 하루 일하면 쌀을 한 되 정도

주었다고 한다. 살아 돌아간다는 희망도 돈을 모아야 할 일도 없다 보니 하루 일하면 그것으로 이틀 정도는 먹을 수 있으니 일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묵었던 숙소는 꿀벌을 치는 집인 듯 화장실 드나드는 곳에 꿀통이 있어 나갈 때마다 한 번씩 퍼먹고 들어왔는데, 다음 날 “조센징 ~~~” 하며 화내는 일을 겪어야 했고, 꿀 먹은 벙어리라는 속담처럼 밥도 못 먹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밭에서 수수가 붉게 여물어갈 무렵 부산항을 통해 무사 귀환을 하셨다. 집에서는 밖에만 내다보며 기다리는데 읍내에서 여기저기 다 돌렀다 해가 기운 저녁 들어오셨다고 한다.

2. 한국전쟁으로 초리를 떠나다(29~74세)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셨는데, 증조할아버지는 콩 농사를 지어 작은할아버지들 장가들을 들이고 세간도 내고 하시면서 살았다. 아버지는 밭은 그런대로 있었으나 논이 귀해 남의 논을 빌려 논농사도 지으셨다. 어느 날 그 소작농을 하던 논을 판다는 소문이 들렸다. 아버지는 그 논이 사고 싶어 밤새워 뒤척이다 소개하는 아저씨를 찾아갔다. “제가 그 논을 사고 싶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 없이 한참 있더니 “자네가 산다면 줘야지. 그런데 돈은 있나~” “돈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다만 꾸어서라도 **는 꼭 마련을 할 터이니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자네라면 이 논을 가질만하지(부른 가격의 반의반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아버지의 살아온 신뢰가 그 일이 성사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마련한 논에서 농사를 1년 짓고 다음 해 난리가 터졌다. 아마도 공산화가 되면 모든 사유재산을 빼앗길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안 지주의 대처였던 것 같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서는 물 대기 제일 좋은 넓은 논을 사게 되었다. 얼마나 좋았던지 살림에는 취미가 없어 밖으로만 돌던 할아버지가 아픈 몸을 끌고 모를 낸 논에 나와 보셨다는데 그해로 돌아가셨다.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디엠지 안의 산에 잠들어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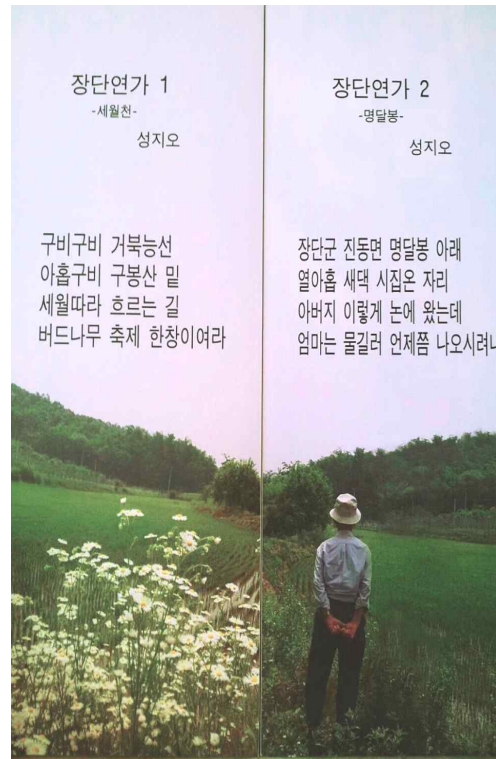
아버지는 어릴 때 나무하러 가는 할아버지를 따라 산에 가면 베개 등치만 한 솔가지를 메고 왔다고 한다. 그것을 울타리에 빙 둘러 세워놓는 것을 보고 증조할아버지는 “살림을 일으킬 녀석”이라며 흐뭇해하셨단다.

그렇게 산 논에서 기쁨으로 첫해 농사짓고 다음 해에 모를 냈는데 6.25가 터졌다. 잠깐만 나갔다 들어오라던 고향길이 영영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되었다. 봄이 되어 모내기할 때가 되면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심정이 미칠 것만 같더라.

남북관계는 늘 살얼음판 위의 정국이었고, 북측은 야금야금 북방한계선을 내리고 있었다. 게다가 북한은 1968년 청와대, 미 대사관 등을 폭격하러 남파한다. 소위 1.21 침투 사건이다. 김신조 일당 21명이 넘어온 그곳은 요즈음 1.21 침투로라는 연천군의 안보 관광지가 되었다. 그해 이른 봄 나의 큰언니가 집 마당에서 혼례식을 올렸는데, 하필 그날이 나의 중학교 시험날이라 갔다 오니 모두 끝나고 언니도 떠나 언니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북쪽에서 북방한계선을 좁혀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자 우리도 남방한계선을 조금 올렸다. 그 철조망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1.21 침투로이다. 아버지를 모시고 가 보았다. “바로 저 산 넘어가 내가 태어난 동네 응달말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묘소가 저 너머에 있단다” 목소리가 축축하셨다. 그리고 1974년 7.4 남북공동성명도 발표되고 남북의 분위기는 봄빛 분위기였고 곧 통일되는 듯했다.



명달봉 아래 집터와 6.25전쟁 1년 전
아버지가 산 초리 논



논둑에 서서 논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시화로 만들어 보았다



고향을 두고 파주에서 70여 년을 살았다.



명달봉 아래 집터 자리
저 산 뒤가 구봉산이다.

3. 1983년 민통선의 북상으로 아버지가 샀던 논을 들어 가다.

1983년 최초의 민통선 범위설정을 하기에 이른다. 즉 군사분계선을 이남 20~40km로 정한 것이다. 그 1차 남방한계선이 올라갈 때 아버지가 사신 논이 해제되어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한이 풀린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을 대변해 두 사람 이상만 보증을 서면 땅을 찾을 수 있는 장단 군민 회장을 맡아 실향민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을 함께하기도 하셨다. 나도 아버지가 샀다는 고향 논에 모내려 가는 날 따라가 보았다. 어머니가 “저 위 (✓)산 아래가 집이었었는데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구나 그 앞으로 흐르는 물에 빨래도 하곤 했었는데, 그 물이 여기로 흘러내려 오는 거란다.”라고 하셨다. “그래도 작은 할아버지네들처럼 아무 데도 못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우린 감사하구나.” 하는 젖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물을 대러 물꼬를 터놓고 나왔는데 가 보니 팔뚝만 한 가물치가 물구멍을 막아 물이 못 들어가 모를 못 내고 돌아온 적도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고향에 갈 수 있는걸 즐기셨다. 벼를 심고 논두렁엔 들깨 따위를 심으며 일을 하셨다. 논에서 일을 하시다가 논둑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뵈면 좋더라고 하던 아버지 말씀, 장단에서 난 것이라며 이것저것 맛있는 밥상을 차리셨다. 그렇게 일을 하시다 나와야 할 때는 집이 여기였으면 하는 생각이 아니 들었을까. 지척의 집이 있던 곳을 바라만 보고 나와야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한, 집터 자리는 그때까지 남방한계선 안에 들어가 있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4. 1993, 1997년 남방한계선을 북쪽으로 더 올려 고향 집터를 밟아보다(75~현 99세)

1993년 12월 83년 최초에 이어 1차로 민통선을 올리는 일에 이어 1997년 1월 2차로 남방한계선을 올리는 경사가 있었다. 그것은 군사분계선 아래 이남으로 5~10km 지점에 남방한계선을 칠 수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북쪽으로 5km 정도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집이 있었던 곳을 들어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의 기쁨을 집을 떠나있던 시절이라 가까이에서 느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상상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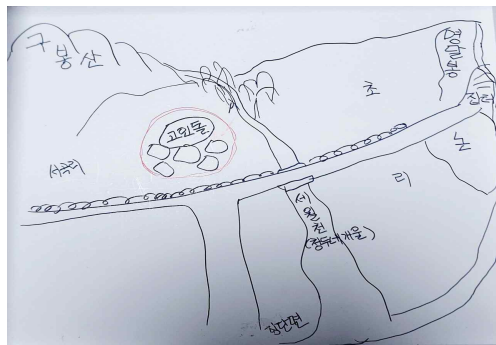
우리 형제들을 키우면서 농사지을 땅이 필요할 때는 들어갈 수 없던 곳이 막상 들어가게 되니 일을 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되고 만 것이다. 그래도 십여 년 이상 농사를 지어보셨으니 어느 정도의 한은 달래보셨다. 집터가 있던 밭은 빌려주었는데 어느 해 추석 무렵 가 보니 청청한 고추와 들깨가 잘 되었다. 고향 밭에서 난 것이라며 고추들을 사 들고 왔다. 엄마가 물 길고 빨래하던 우물과 냇가가 저만치라는 것도 큰 언니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그때 우물가에 다니기도 했다는 큰언니는 45년생으로 5, 6세였으니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81세로 19년 전 돌아가시고, 올해 99세이신 아버지께 여쭙볼 일이 생겼다. 2022. 01. 27 파주향토문화연구소에서 차문성 소장님의 발의로 초리 고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구봉산 아래 오래된 사람들 갖다 묻은 고려장인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하니 조사가 탄력을 받았다.

아버진 요양병원에 계시다. 그래도 그때는 전화를 잘 받으셔서 전화로 여쭙보았다. 아버진 고향 뒷산 그런 얘기가 나오자 할 일을 찾으신 듯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 면회도 어렵고 답답하여 그림으로 그려 그곳에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게 들고 갔다. 코로나 상황이라 직원들 입회하에 유리창 너머로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했다. 답답한 손짓 눈빛으

로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대 준다. “그래 여기가 맞아, 그곳에 고려장인지 죽은 지 오래됐다는 사람들이 묻혀있다는 돌덩이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개성으로 가다 보면 길에서도 보였다.”라는 말씀이시다. 그러더니 “그림을 아주 험다 하게 그렸구나~” 칭찬에 서툰 아버지가 내게 한 처음 한 칭찬이시다. 1987년에 경기도에서 조사한 것에 나와 있는 고인돌군과 맞아떨어지는 그 자리이다.

2022. 1. 27일 초리 고인돌군 탐사 참가자: 조진석, 김정희, 성지오(차문성 소장 별도 동행)



<그림 16> 구봉산 아래 고인돌 군이 있다는 곳(성낙균 증언)



<그림 17> 사진의 왼쪽으로 고인돌 군(50여 기)이 있고, 사진의 앞으로 세월천(새골천)이 흐른다.



<그림 18> 고인돌 군 옆에서 흘러 내려오는 세월천(청두네 개울)



<그림 19> 구봉산 아래 초소와 세월천(새골천)이 흐르고 고인돌군은 왼쪽 아래쪽에 있다고 한다.

1987년 경기도에서 초리 고인돌 유적을 조사한 현황

경기도백제문화유적지표조사의 일환(1985-1986) 고인돌 2개소

초리 고인돌군(김포 매암리의 고인돌군도 함께했으나 여기서는 생략)의 50여 기

김병모 교수, 심광주 교수 조사작성, 사진 및 도면 이해일 교수(한양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왕서곡리와 초리 사이를 지나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새골천 상류 지점인 초리에 있다. 새골천과 인접해 있는 도로의 양편 수풀 속에 50여 기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다. 역시 미확인 지뢰 지역이기 때문에 정밀 조사는 할 수 없었지만, 고인돌 중 상당수가 도로로부터 100여m 떨어진 산 밑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도로 작업 때 파괴되었을까 덮개돌이 다른 덮개돌 위에 포개져 있는 것도 보인다.

고인돌은 화강암을 석재로 하여 만들었는데 인근 지역에 화강암 산출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멀리에서 옮겨다가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형태는 지석이 없는 남방식으로 덮개돌의 장축방향은 새골천의 흐름 방향과 같은 북서, 남동이다. 실측이 가능한 고인돌의 크기는 ①125×129×166cm, ②260×155×70cm, ③184×125×85cm, ④210×117×50cm, ⑤210×180×50cm, ⑥150×120×80cm이다.

인근 지역에서 고인돌이 조사 보고된 예로는 1965년 월릉에서 북방식 고인돌 10기와 주거지가 조사되었고 옥석리에서도 고인돌을 발굴하여 많은 자료를 얻었다. 그 외에도 탄현면 금구리, 교하면 상지석리, 다율리, 조리면 뇌조리 등지에서 많은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그것은 임진강을 끼고 발달한 넓은 평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접한 연천군과 함께 고인돌의 분포와 평야 및 취락지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장단군 진동면 지도



<그림 21> 진동면 초리



<그림 22> 연천 시암리 고인돌
조사(1987년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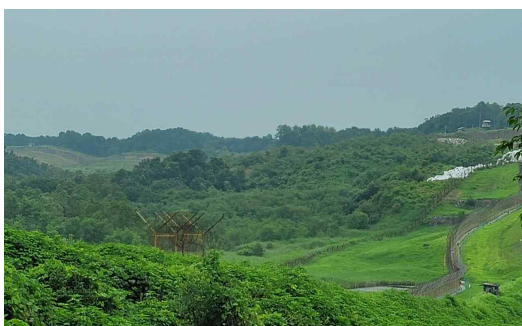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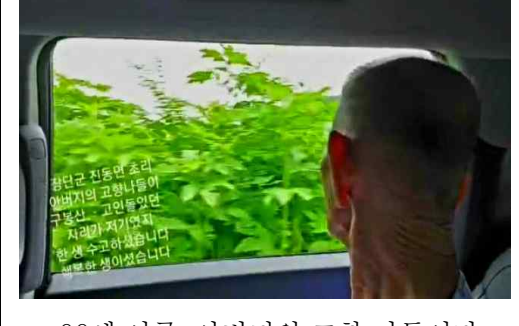
<그림 23> 장단 초리 고인돌
조사(1987년 경기도)

전화는 잘 받고 하시던 아버지가 자꾸 이상해져 가신다.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 나들이를 한번 다녀오자고 애기들을 했다. 너무도 빠르게 쇠약해져 가시기 때문이었다. 그날의 나들이를 이렇게 써 보았다.

장단군 진동면 초리, 아버지 모시고 나들이를 간다. 피란을 나와 70여 년을 사신 집과 평생을 드나드셨던 파주향교, 엄마가 잠들어계신 감악산도 다닐 계획이다. 99세 갑자생 아버지는 정신이 혼미할 뿐 그 혼한 치매하나 없으시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당은 풀숲에 쓸쓸하기 그지없다. 돌아 나오다 이웃집 아주머니와 외숙모를 만나게 해드렸다. 언제 또 만날 날이 있을지 모를 분둘끼리 서로 손을 잡고 눈물들을 흘리신다. 지 애비 중동 갈 때 젓먹이이던 손녀는 의젓한 어미가 되어 “할아버지 못 찾아뵈는 동안 어쩌면 이렇게~~”하며 할아버지를 안고 눈물을 그칠 줄 모른다.

아버진 오늘 받으신 봉투 세 개를 소중하게 꼭 쥐고 계신다. 봉투가 필요 없을 터이런만 당신 것을 챙기는 저 꾀꾀한 성정이 6.25를 만나 피란을 내려와서도 살아내셨을 것이다. 콩밭으로 변한 초리 옛 집터를 가자 “저기, 저기가 집이 있던 자리다”며 흥분하듯 얼굴이 환해지신다. 나는 그런 아버지께 자꾸 말을 시켜보며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찍는다. 자꾸 우리 곁에서 멀어져가는 아버지와 추억을 남

기고 싶어서이다. 아버지 이당에 저세상에 가서서 나들이 오신다면 이곳을 오실 것이다. 네 시간의 외출이 끝나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휠체어를 타고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의 이 외출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기원해 본다.²⁾

	
초리 집터 바로 위 남방한계선의 모습	초리 집터 바로 위 남방한계선 너머의 고요
	
명달봉에서 내려다보이는 민통선	99세 여름, 아버지의 고향 나들이가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 달쯤 후의 아버지 생신날이기도 한 추석날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면 면회를 오라고 했다. 아들 며느리들 둘씩만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다는데, 너무 변해계셨다. 막 나와 들어선 날 보시더니 택시 불렀냐며 얼른 그거 타고 언니 오빠 있는데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일어나려고 하신다. 아버지의 저 곳곳한 정신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버지 그런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굳건히 살아남으셔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성지오, 「아버지와와 고향 나들이」, 『파주문학』, 파주문인협회, 22.7.23



파주향토문화연구소에서 준경묘 나들이를 가던 날의 풍경

IV. 맺음말

한국전쟁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고 삶의 터전을 잃게 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힘든 일도 있지만, 나의 아버지만큼 그 변화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흔치 않을 것이다. 일제 징용을 끌려갔다가 살아와 살던 곳에서 쫓겨나 강하나 건너가면 될 일을 그 임진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야 했던 피란민! 그것도 한번이 아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남북정세의 흐름에 따라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게 열리던 터전, 초리 고인돌, 민통선, 남방한계선 얘기만 들어도 아버지의 삶이 떠 오른다

내년 추석쯤 고향 나들이 한 번쯤 더 다녀왔으면 좋겠다. 살아오신 육신을 빼고, 멀고 먼 강을 건너시느라 혼자 얼마나 힘이 드실지 마음만 아프다. 아버지가 태어난 곳 초리(哨里)는 이름도 희한하게 망본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이곳이 이렇게 초소가 생길 자리인지 알고 정해진 이름이기라도 한 듯 말이다.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탱크를 밀고 내려온 곳이 바로 그 구봉산 아래 세월(새골)천이 있는 고인돌 군 옆 초리이다.

운명처럼 그곳에서 태어나 옷깃 고난을 겪어야 했던, 그런가운데서도 곳곳하게 살아온 성낙균 당신의 삶은 일제징용, 한국전쟁, 남방한계선과 함께 저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 참고문헌

경기도. 1987, 『민통선북방지역자원조사 보고서』

정해용. 1993, 「민간인통제선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 마을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24 2호